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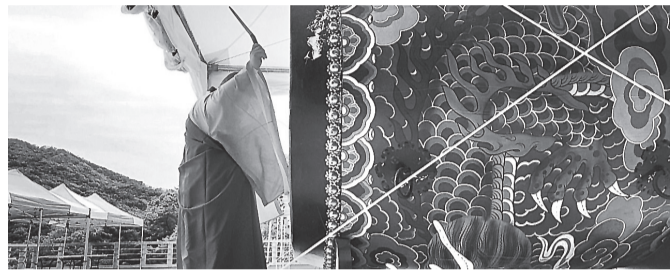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 방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각자 자리에서 행복 추구하는 일상 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일 시 : 불기 2566년 5월 18일 오전11시
 *장 소 : 경내 출판부 사무실
 *사진·정리 : 조여래장, 황청량심, 서용화수, 심대덕심, 여 여광, 주향진성

법고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명종스님의 장중한 법고의 울림으로 봉축법요식 시작을 알렸다.

법고의 울림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의 번뇌를 물리쳐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아기부처님 관육하는 주지 성행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주지 성행스님은 위대한 성인의 탄생을 세상만물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과 동시에 인류의 번뇌도 함께 씻겨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 부처님 관육 의식을 행했다. 부처님을 씻는 건 관육(灌浴), 관불(灌佛), 육불(浴佛)이라고 한다.

육법공양



육법회원들은 여섯 가지 가르침의 의미를 담은 공양물을 올렸다. 옛날 인도에서 화폐 대신에 수행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양하는 전통이 있었다. 특별히 의미를 담아 올리는 공양물을 여섯 가지(향, 초, 꽃, 과일, 차, 쌀)를 육법공양이라고 불렀다.

부처님 오신 날 실천 성금전달



사단법인 청소년 마이트리를 이끌고 있는 주지 성행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열린 봉축법요식을 통해 의왕주민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안중서 의왕복지문화국장에게 전달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섰다.

청소년 발원문



이희연(중2), 김준희(중1) 청계사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처님 믿는 마음 변치 않고 배운 법을 익혀 실천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신도회장 기원문



부처님의 가피로 제20대 대통령의 지혜가 활짝 열리어 국민이 나라 걱정 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발원, 미후에 싸여 온갖 재앙을 불러들이는 중생들을

지혜의 눈으로 밝힐 수 있도록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고 궁극에는 성불의 인연을 맺도록 가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아기 부처님 축하해요



청계사를 찾은 불자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아기 부처님 불상에 물을 3번에 나누어서 아기부처님을 정성 드려 씻겨 드리는 관육식으로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동시에 자신의 번뇌도 씻어 내길 발원했다.

장학금 전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주지 성행 스님은 불교 스카우트 지도법사(수인스님) 및 대장(김지혜), 대원(김강년 청소년·최지용 어린이)에게 격려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우리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과 어린이, 그 지도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길게 늘어난 점심 공양 배식줄



이른 아침부터 청계사를 찾은 참배객은 물론 청계산을 찾은 등산객까지 정성스레 준비된 점심 배식으로 점심 공양을 대신했다. 법요식이 끝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물러 길게 줄지어 기다려야 했다. 떡 배식과 함께 청계사보통을 함께 배부해 부처님 법을 알리는데 한몫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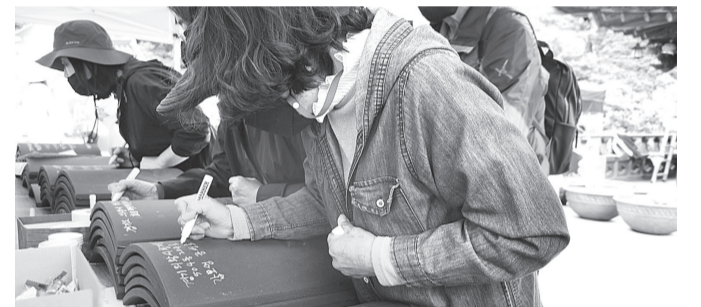
점등식



산사에 올라온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야외법당에서 저녁예불을 불·법·승 사부대중의 하나 된 목소리로 시작된 봉축 점등식은 극락보전 앞마당 장엄등과 정각에 달아놓은 모든 등이 점등되어 불자들의 희망의 빛이요 마음에 빛, 평화에 빛이 청계사 경내를 환하게 밝혔다.

오후 7시 30분 예정되었던 탑돌이는 갑작스러운 우천 관계로 취소됐다.

기외불사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와 뿌듯한 마음은 무엇일까! 가족과 친지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 들여 한 자 한 자 기록하고 사찰 한 부분 봉사하였다는 한결 맘 편한 발걸음

질서 정연한 차량 운행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찰을 참배하는 불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덕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봉사자들은 초파일 종일 내내 원활한 운행과 불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 봉사에 임했다.

어린이 법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청계사 야외법당에서 천진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휴일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청계사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단주 등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한편 폐품으로 버려지는 양말을 재활용하여 카네이션 모양의 브로치를 만들거나 가방에 매달아 장식 할 수 있는 꽃등을 만드는 양말목 공예를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행사부스 주변을 지나는 어린이들은 비눗방울 놀이를 하거나 줄넘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린이날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이렇듯 예로부터 사찰은 어린이들에게 지금의 어린이날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만나서 활동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에 다소 위축된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모처럼 부처님 품 안에서 천진분과 함께한 반가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100년 전 사찰의 풍경처럼 청계사 앞마당에 늘 푸르른 천진분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어린이, 청소년 지도법사 수인스님〉



| 감사 합 니 다 |

쌀쌀한 날씨와 오가시는 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명실상부한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 주 대 궁 종 상
 주 지 박 성 행
 사 부 대 중 일 동

대한불교 청계산 청계사
 조 계 종

특집 부처님 오신 날 이모 저모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관옥대 꽃꽂이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관옥대 주변을 정성스럽게 꽃으로 꾸미고 있는 봉사단 우담회



대청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각 전각과 사찰 주변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목어회.



음성공양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사부대중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고 있는 합창단



연등 접수 축원카드, 연등접수 등 종무소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손을 보태고 있는 봉사단 금강회



떡쌀 씻기 공양 없이 떡 나눔으로 전날부터 쌀을 씻어 놓느라 분주한 봉사단 목어회



연등 만들기 울력 3일에 걸쳐 낮에는 화려하게 밤에는 아름답게 밝혀줄 연등 만들기 울력에 동참한 청계사 자비나눔 봉사단과 신도들



장엄 등 달기 신도회 봉사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장엄 등을 달아주는 희망나래 봉사팀



냉면 대접 내빈들의 점심 공양으로 냉면을 준비하는 만토지기



호떡 공양 쌀쌀한 날씨에 직접 구워 판매하고 있는 봉사단 삼보회.



떡볶이 행사 청계사를 방문한 어린 불자들을 위해 떡볶이를 준비한 어린이 법회



소원지 해외출장을 간 남편과 아빠를 위해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고사리 손으로 소원지를 쓰고 있는 엄마와 딸



성행스님의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②6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불자들도 교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불자라면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딱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앙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교리 즉 교(敎)를 몸이라 하고 선(禪)을 마음에 비유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비로써 마음 또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리에 대해 간결한 문답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불교를 만난 불자들은 물론 구참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미신이란 올바른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위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비는 행위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의 맑고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고, 그 마음을 닦고 닦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원만해지도록 수행하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다같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불교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염불과 참선 등 예법을 병행하며 보살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문)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가요?
답) 많은 서양학자들은 종교를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를 그들은 종교라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종교를 궁극적인 변혁과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훌륭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완벽한 인생관? 세계관을 포함한 가장 보편타당한 종교이며 깊이 있는 인생의 진리라고 지칭합니다.

문)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 불교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 불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세상에는 불교의 탈을 쓴 미신 또는 사교(邪敎)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란 이름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긍정될 수는 없습니다. 유교와 도교와 기독교 등은 불교의 가르침과 공통되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불교만큼 깊고 보편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교의 교훈을 따라 재해석(再解釋)되고 시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절 명장면



◇청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비보살행을 이어가신 최고령 불자님들. (사진 심대덕님)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의왕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적극적인 행사 참여로 지역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길...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중 녹향원 가족들은 큰 용기를 내서 의왕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각정과 달리 함께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다소 답답할 수 있음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체육대회에 임했습니다.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종목들의 경기가 진행

되었고 우리 가족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댄스 이벤트에 참가해서 상품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인지 녹향원 가족들이 속한 팀이 체육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어서 보다 많은 지역행사에서 참가해서 지역사회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 사회복지사 황승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Table with columns for 수입 (수입) and 지출 (지출) amounts, categorized by month and type (e.g., 지정, 비지정, 기타).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30일)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ategorized by amount (e.g., 5,000원, 10,000원, etc.) and type (직접후원, 자동납부).

물품 후원

유병주-두유, 화이트치킨-구운계란, 연화심-피자, 폴라, 파리바게트인덕원점-빵, 장미영-박카스, 두유, 과자, 오렌지, 떡,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자가검사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핸드워시, 손소독젤, 손소독티슈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지혜로운 삶

세상을 살다보면 어디 하나 아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내고 보면 모두가 아쉽고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후회... 쓴웃음이 나올 법도 할 것입니다. 세월이 덧없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재력이던 잘난 사람이 라도 그 흐름 속에선 어디 하나 힘을 곳이 없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과 병들어가는 모습에 화려했던 과거에 잠시 빠져들어서 눈물을 흘리 겠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고 직장을 얻어 드디어 부모의 도움에서 스스로

철없던 시절이 재미있었고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게 인간사의 고통이죠. 결국 모든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돈, 명예, 가족, 기타 등등 그렇다 자기의 분심마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즈음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이 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섭법(四攝法)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행동에 옮겨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행동의 도(道)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섭법 중에서도 이행섭(利行攝)입니다. 이행섭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속한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냉정히 평가해서 '아닌 것은 아니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인간사의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선행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화복, 고락 하라

개척해야 할 인생의 이모작이죠. 때가 되면 또 다시 대를 이어야 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내와 자식이 탄생하고 어느 아버지와 똑같이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이끌어가고 그러다보면 청년이 되고 내가 40이 되어 그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 까! 라고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하죠. 미리 40이라는 상황을 알게 되고 또 50이라는 나이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더 힘들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쉬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

다'라고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동사섭(同事攝)하라는 것입니다. 동사섭은 모든 중생과 함께 화복(禍福), 고락(苦樂)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중생들에게 주려는지, '검은 것은 검다고 해야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고 지혜도 잃으면 인간 본심까지 잃는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안락을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모두 의심 단결하여 힘든 일을 극복하는 참주 인공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생활의 지혜

- 짜증 날 때는 우유를 짜증은 갈슘 부족으로 인한 신경의 흥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갈슘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줄일 수 있다.
• 헤어 드라이기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열풍으로 드라이한 후 끝낼 때 냉풍으로 드라이기를 식힌 후 끄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운동화 빨리 말리려면 운동화를 뽕고 난 다음 맥주병에 걸어 두면 2-3시간 빨리 말릴 수 있다. <정리 황청량님>

이달의 후원금 금 3,671,95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봉사 활동 없음.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정리 심 대덕님>

Table with 7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and their corresponding life advice.